

고령자의 주거생활 환경과 삶의 질에 관한 연구

- Q.O.L 상승요인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

A Study on Living Environment and Q.O.L of the Elderly

이종협* / Lee, Jong-Hyub

Abstract

The worthness of life of an elderly person is a subjective thing that is based on the individual's sense of values, and it depends on what he or she pursues in life. Therefore, the quality of life is a relative concept and it varies according to individual tastes and changes of values resulted from changes of social framewor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urnish information about the basic plan for the increase of Q.O.L. There are three methods used in this study. First is to understand the structure and the factors related to Q.O.L by research and documents. Second, site survey and analysis of urban and rural areas, for example Seoul and Jochiwon, and third, study the condition of the old using SPSS. The result of study to enrich the Q.O.L of the old can be categorized into two ways. First, the old themselves has to satisfy the image of the old who has a high Q.O.L. Second, the community has to support the proper environment for the old to get worth of life.

키워드 : 고령자, 주거환경, 삶의 질, QOL, 생활실태

1. 서론

자연과학의 눈부신 성과의 하나는 장수사회의 실현과 그 발전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러한 성과를 인류의 행복에 충분히 활용하였다 할 수는 없다. 고령기에 있어서도 사람들은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어야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회의 실현이 과제이고 이를 위해 라이프 사이클과 지역사회를 디자인 할 필요가 있다. 한국 국민의 평균수명 추이는 1960년 대비 과거 40년간 24년 이상을 신장하여 2000년에는 75.9세(남72.1세, 여79.5세)이고, 2030년에는 81.5세(남78.4세, 여84.8세)로 5년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진다.<표 1 참조>

<표 1> 한국의 평균수명추이(1960~2030년) (단위 : 세)

연도 구분	1960	1970	1980	1990	1995	2000	2010	2020	2030
평균	52.4	63.2	65.8	71.6	73.5	75.9	78.8	80.7	81.5
남	51.1	59.8	62.7	67.7	69.6	72.1	75.5	77.5	78.4
여	53.7	66.7	69.1	75.7	77.4	79.5	82.2	84.1	84.8
차이	2.6	6.9	6.4	8.0	7.8	7.4	6.7	6.6	6.4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1.11
1980년 및 1990년 평균수명은 각1978-1979년 및 1991년 생명표 자료임

이러한 고령자 인구증가와 함께 나타나는 고령자 문제는 주변 환경의 변화를 배경으로, 특히 사회적으로, 경제사회의 세계화, 도시화, 지방화 등의 현상, 사회의 환경·실업·소외감 등의 문제, 가정에서의 가족구조의 변화, 개인주의화 등이 복합된 결과로 나타나고, 고령자 개인에게는 노동시간 단축, 정년후의 긴 여명시간과 여가시간 활용 등이 주목된다. 이에 대응하여 고령자 개인에게는, 자신이 Life-Style의 설계와 이의 실천에 기초한 만족·행복감을 실감할 수 있는 사회의 구축이 요구된다.<표 2 참조>

<표 2> 한국의성별·연령별 기대수명 (단위:년)

기대수명 \ 현연령	0세	50세	55세	60세	65세	70세	75세	80세
남	72.84	26.03	21.95	18.11	14.57	11.37	8.64	6.44
여	80.01	31.86	27.24	22.75	18.43	14.41	10.86	7.92

자료 : 통계청 「2001년 생명표」, 2003. 09

상기의 내용을 배경으로 본 연구가 지향하는 최종의 목표는 고령사회에 있어서 고령자의 생활의 질[Quality of Life (이하 Q.O.L)]을 충실·상승시키기 위한 기초설계에 공헌하는 정보-참고 및 기초정보-를 제안하는 것으로 본 연구의 결과가, 고령화의 진전이라는 사회적 배경에서, 고령자가 지역사회 내의 생활에서 삶의 보람과 행복감을 갖고 생을 영위하는 주거환경 구

* 이사, 동양대학교 실내디자인학과 조교수

축을 위해 고령자 시설대책에 이바지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고령자의 지역에서의 활동내용과 삶의 보람, 생활만족을 위한 요구 등에 관하여, 라이프 사이클을 중심으로 ① 고령자의 삶의 질과 관련된 요인과 구조의 파악, ② 고령자의 지역내 (사회에서) 생활 실태를 현장 조사(설문지, 인터뷰)한 내용 중 ①과 관련된 항목을 추출하여 통계 방법을 적용하고 그 내용에 대한 고령자의 현 생활실태를 연구 분석 한다.

2. 고령자의 삶의 질

삶의 사전적 의미는 '생(生)' '살아있는 일' '사는 일'로 모든 생명체에 해당되는 일이며 현상이다. 그러한 삶의 질을 논하는 것은 인간의 매우 근본적인 것에 관한 것으로, 편리함과 윤택한 생활을 위한 자기 개발이 중시되는 「질」의 관심은, 경제성장의 발전과 가치체계 변화의 양 측면을 포함하는 것을 배경으로 양보다는 질적 측면에서의 고차원적 욕구의 충족을 원하게 되었다.

삶의 질은 사회복지(social wellbeing), 사회적 만족(social satisfaction), 사회적 복리(social welfare), 생활수준(level of living), 생활의 기준(standard of living) 등 여러 용어들이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다.¹⁾ 이와같이 다방면에서 다루어지는 이유는, 삶 그 자체의 정의가 어렵고 연관성에 의한 다양한 의문 - 어떤 종류의 상황이 바람직한 삶의 조건을 제공하는가?, 무엇이 어떤 개인의 삶을 좋은 것(a good one)으로 만들어 주는가? 무엇이 삶을 가치 있는 것(a valuable one)으로 만들어 주는가-이 제기 될 수 있기 때문이다.²⁾ 삶의 질의 개념을 정의한 견해를 보면 한국 보건사회 연구원(1996) 삶의 질은 '살아가는 일이 더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상태'에 대한 추상적 개념이라 서술하였다³⁾. 센(Sen,A)이 제안하고 있는 실현능력 접근방법(The Capability Approach)에 따른 개념으로 '한 개인의 물질적, 사회 문화적, 심리적, 정신적 실존의 통일적 총합'이라 할 수 있다⁴⁾고하였다. 신 도철(1981)은 삶의 질이란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것이 주가 되는 것으로 생활의 질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의 성취에서 생기는 물리적 상태로서 사람들이 느끼는 복지와 즐거움이 사람들의 생활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고, 하 재구(1986)는 삶의 질이라는 뜻은 인간

생활의 양이 아닌 질의 문제 즉, 인간생활의 질적 수준과 삶의 가치의식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라 하였다. 이 주원(1991)은 삶의 질은 인간의 행복을 나타내는 포괄적 개념으로 범위가 광범위하며, 객관적 삶의 상태와 주관적인 인간의 특성을 모두 반영하는 개념이라 하였으며, 박 성호(1994)는 삶의 질은 인간의 내재적 본성(욕구)이 외부 환경과 상호 작용하면서 나타나는 삶의 방법과 상태라고 정의하고 삶의 질에 대한 욕구와 가치판단을 전제하였다. 조용석(1996)은 삶의 질이란 개인이 갖고 있는 근본적 욕구가 처해 있는 객관적이고 환경적인 조건 즉, 삶의 계획의 실현 가능성(환경)이라 정의 한다. 김상균(1996)은 삶의 질은 사회적인 물적·인적 조건 및 제도와 그 사회에서 일상의 삶을 영위하는 사회성원 사이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의 결과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개인의 삶이 가치있고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총량으로서의 만족감으로 삶의 질은 그 사회의 규범, 가치, 관습에 영향을 받는 규범적인 것이라 하였다.⁵⁾ 이상의 내용들을 보면 삶의 질은 개인의 가치를 이루는 주관적 개념과 그의 판단이 되는 환경에 대한 상대적 비교(객관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어 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삶의 질을 일상생활에서 자신이 판단하는 삶의 보람의 정도라 하고 그 정도는 개인의 만족감과 행복감에 기인한다고 정의한다. 「삶의 보람」은 도대체 무엇인가. 宮城(1971)에 의하면, 「삶의 보람」은, 「삶의 보람욕구」, 「삶의 보람감」, 「삶의 보람대상」으로 분류가 된다. 「삶의 보람욕구」는 삶의 보람을 구하는 기분, 즉 평형을 깨뜨리는 기분이고, 「삶의 보람감」은 생의 기쁨을 음미하는 「쾌(자연적 자극), 기쁨(사회생활), 행복감(장래까지를 생각하는 인생전체의 적응·부적응)」으로부터의 중요 구조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최후에는, 「삶의 보람대상」은 그러한 의식을 포함하는 것이 되는 대상이다.⁶⁾ 神谷은 특히 삶이 보람감과 행복감의 다른 것에 대해 언급하여, 「삶의 보람감은 행복감의 경우보다 더 한층 더 확실히 장래를 기대하는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다」⁷⁾고 하였다. 일반적인 고령기는 신체기능, 입장과 역할, 인간관계 등의 망실을 경험하는 시기로 이에 적응하는 고령자 라이프 스타일은, 고령자 자신과 사회의 시스템간의 결과이므로, 이의 대응이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의 많은 것이 끊어지고, 존속되더라도 질적으로 개선되는 불가피한 프로세스(Cumming and Henry, 1961)라 정의하는 이탈이론, 이와 반대로 활동적으로 계속하는 것이 고령기를 즐겁게 보내는 방법 (Havinghurst, 1963)이라 정의 하는 활동이론과 이의 두 이론을 반성하는 활동이 아닌 적응형태의 선택에 의해 퍼스낼리티의 완수역할에 중점을 둔(Atcheley, 1976) 계

1) 이인영, 삶의 질 분석을 통한 도시개발효과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환경과학대학원, 1966, pp.6-7

2) 이계기·이은우·김재홍 공저. 삶의 질의 국제비교와 지역 간 비교분석, 집문당, 1988, p.45

3) 문병식 외, 「한국인의 삶의 질」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6, pp.33-34

4) 탁성복 외, 삶의 질에 대한 규범적 접근, 21C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과 과제, 대구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1996, p.29

5) 안지민, 경북 기초자치단체의 삶의 질 비교평가, 경북대학교 석론, 2000, pp.7-9 재인용

6) 宮成音弥, 日本人の生きがい 朝日新聞社, 1971

7) 神谷美恵子, 生きがいについて みすず書房, 1980, p.30

속이론 등이 주요한 Aging 이론이다.⁸⁾ 이들 이론에서의 고령자의 라이프 스타일은 중년기에 결정되어져 숙달된 것이 고령기에도 계속 연결되므로 고령자 자신의 적응의 형태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의 고령자는 신체기능의 변화를 수용하는 심신이 건강한 고령자가 최저한의 생활이 보장되고, 주위 환경에 의해 지원을 받는 사회에서 자신이 바라는 활동을 희망하는 형태로 행할 수 있는 즉, 삶의 보람을 갖고 사는 것이 가능한 고령자가 Q.O.L이 높은 고령자라 정의한다. 이러한 생활행동을 기준으로 한 관점에서의 고령자의 삶의 질, 삶의 보람의 문제는 각 개인의 처한 환경에 의해 다르다. 이의 해결을 위하여 고령자 자신은 「자신이 살아가는 의미와 필요가 있으며, 이를 느껴야하고,⁹⁾ 또한 사회와의 교류가 중요한 관련요인의 하나가 된다. 고령자 자신은 어떠한 상태가 자신에게 삶의 보람이 있는 생활인가를 생각해야하고, 사회는 삶의 보람을 과제로 취급하여 연령에 의해 저해되는 시스템을 재고한 어느 한쪽이 아닌 양측의 노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고령자의 「삶의 보람」에 관한 서비스의 제공은, 현 상황의 평형상태를 깨트리는 「삶의 보람욕구」와 불안의 제거와 고령자가 「삶의 보람」을 갖도록 하여, 삶이 좋고 또한 삶이 필요가 있다는 「삶의 보람감」을 느끼는 것이 가능한 서비스의 제공과 그 환경(조건)을 정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기존연구의 검토에 대응한 본 연구에서의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고령사회의 주역인 고령자의 생활 목표는 Q.O.L의 충실이며, 구체적으로는 『지역구성원으로서 자기 자신의 생활설계를 하고, 생활에 삶의 보람을 갖고, 생활에 만족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한다.」 그 Q.O.L에 관련한 요인들을 다음과 같이 분류<표 3 참조>하고 설정한다.

- 1) 환경 만들기의 Design에 의해 조작될 수 있는 욕구 : C, H
- 2) C, H의 배경욕구 : A, B, D, E
- 3) C, H가 좋은 효과를 갖는데 영향을 주는 욕구 : B, I
- 4) B=F, C=G

<표 3> Q.O.L에 관련한 요인

주체	대상	요인	욕구	구분
고령자	지역사회 (Community)	경제적 요인	경제와 직업의 안정	A
		건강 요인	의료와 건강의 보장	B
		가속 요인	가족구성의 안정	D
		경제적 요인	빈곤	E
	자기 자신	신체적 요인	신체기능의 약화	F
		사회적 요인	참가, 여가, 지위의 상실	G
		자신의 심려	정보, 문화의 단절	I

8)趙弼花, 高齢者のQuality of Lifeに関する研究, 政策科學, 立命館大學校 政策科學部, 2000, pp.120-121

9)神谷美惠子, 生きがいについて, みすず書房, 1980, p.32

3. 주거 생활환경의 조사

3.1.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과 지역선정

급속한 인구의 고령화에 동반한 고령사회의 주체인 고령자의 생활보장은, 지역사회에서의 고령자 상과 본인의 고령자 상으로, 고령자 자신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지원에 의해 결정되어지고 평가하게 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특징 있는 지역(도시와 농촌지역)을 선정 조사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삶의 보람요소와의 관계를 분석하여 이의 결과가 지역사회의 고령자 대책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는 서울 강서구의 발산동¹⁰⁾(이하 서울)과 농촌은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¹¹⁾(이하 조치원)을 중심으로 한 2지역을 선정하였다. 조사개요는<표 4>와 같다.

<표 4>조사개요

조사 지역	서울, 조치원
조사 대상	60세 이상 고령자 남녀
조사 표수	조치원: 300매, 서울: 400매
추출 방법	무작위추출
조사 방법	1:1배표 항목설명후 회수
회수율	조치원 300매 중 155매(51.6%) 서울 400매 중 214매(53.5%) 전체 369매 (52.7%)
조사 기간	조치원: 2000년 1월17일~2월 18일, 서울: 2000년 3월 7일~3월 18일

*조사 대상자는 60세 이상의 지역거주 남녀 고령자를 그 대상으로 하였으나 음력과 양력의 차이에서의 나이 환산에 따른 오차로 59세 이하의 34인은 60세로 산정하여 처리하였다. *연령별 구성에 의한 분석의 분류는 64세 이하의 고령자 준비세대(준비), 65-74세 이하의 전 고령자(전기), 75세 이상의 후기고령자(후기)로 분류하여 처리하였다. *분석 중 연령별 분류의 유효표는 361매(51.5%), 남녀 별 분류의 유효표는 357매(51%)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 남녀의 분포

내용	서울	조치원	계
	빈도수(%)	빈도수(%)	빈도수(%)
남	96 (44.9)	124 (80.0)	220 (59.6)
여	111 (51.9)	26 (16.8)	137 (37.1)
총수	207 (96.7)	150 (96.8)	357 (96.7)

<표 6> 연령별 분포

내용	서울	조치원	계	
	빈도수(%)	빈도수(%)	빈도수(%)	
고령자준비세대 (준비)	59세이하	24 (11.2)	10 (6.5)	34 (9.2)
	60~64세	54 (25.2)	30 (19.4)	84 (22.8)
전기고령자 (전기)	65~69세	44 (20.6)	17 (11.0)	61 (16.5)
	70~74세	43 (20.1)	40 (25.8)	83 (22.5)
	75~79세	23 (10.7)	40 (25.8)	63 (17.1)
후기고령자 (후기)	80~84세	14 (6.5)	13 (8.4)	27 (7.3)
	85세이상	6 (2.8)	3 (1.9)	9 (2.4)
총수	208 (97.2)	153 (98.7)	361 (97.8)	

(2) 분석 방법

조사 항목은 고령자를 주체로 지역사회와 자기 자신에 대해 구분 후 1)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조사항목은 사회적 요인, 경제

10)면적 3.53km² 인구2.7만명

11)면적13.56km² 인구 3.4만명

적 요인, 건강 요인과 2)자기 자신에 대한 심리적 요인, 가족 요인, 경제적 요인, 신체적 요인, 사회적 요인, 자신의 심려 등으로 분류 <표 7 참조>하고 각 항목별 의 내용(속성 23개, 가족사회 13개, 사회 경제적 상황 9개, 지역사회 생활 8개, 가치관 의향 7개, 주변과의 관계성 5개, Q.O.L 5개) 전체 70개의 항목에 대해 조사표를 설계하고 조사하였다. 내용분석¹²⁾은 조사 항목의 세부항목 중 고령자의 생활의 질 관련구조 분석을 위해 현재 생활의 삶의 보람(현재생활의 만족감과 행복감)을 기준 항목으로 하여 등간척도의 Likert 척도를 5단계로 적용한 17항목의 변인간 유의확률과 상관관계 분석을 시행하여 관련도를 분석하였다. 그 관련항목을 기준으로 하여 고령자의 생활 실태를, (1)조사대상자의 속성, (2)생활실태, (3)가치관과 의식으로 분류하였다. 분류 항목의 세 분류 항목은 단순 빈도분석을 이용하여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내용의 비교는 본 조사의 회답자를 기초로 한 것으로, 서울과 조치원의 전체 고령자를 표현한 것 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표 7> 가설에 의한 조사항목 분류

구분	분류	항목	세부항목
지역사회	경제적	직업의 안정	은퇴 전 직업, 현재의 직업유무
		경제의 안정	수입, 지출
	건강	의료 및 건강	건강상태, 병원검진, 만성질환
자기 자신	가족	구성	배우자유무, 자녀유무, 동거관계, 주거형태, 부양
	경제적	빈곤	수입, 지출, 노후대비
	신체적	신체 기능	기능의 저하
	자신의 심려	정보 문화의 단절	

3.2 고령자의 주거생활 환경 분석

(1) 삶의 질 관련 항목의 상관분석

현재 생활의 만족감과 행복감을 나타내는 「현재, 생활에 만족하십니까?」와 「현재, 생활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의 2항목을 기준으로 하여 각 항목과의 상관관계를 분산분석(Anova)의 유의확률(P-Value)로 검토한다. 이를 위하여 조사 대상자의 조사항목의 내용 중 지역사회와 자신의 생활실태에서 「건강도, 「가족의 여러 가지 결정에 관여, 「의견의 존중정도, 「가족으로부터 존경, 「자신의 욕구대로 생활, 「노후생활에 대한 준비, 「사회활동, 「현재의 연간 수입, 「현재의 저축액, 「노

12) 수집된 자료는 Spss 10.0프로그램을 이용해 분석되었다.

*전반적인 고령자의 생활실태 파악은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이용한 개괄적인 단순 빈도 및 백분율(%)로 표시.

*현재의 생활의 평가와 생활의 만족도에 대한 변수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T-test, 분산분석(Anova)을 실시.

후의 생활 의향, 「현재의 수입의 형태, 「가치관과 의식」에서 「현 생활 평가, 「현 생활 만족, 「장래 생활 평가, 「매일의 일상사, 「정년퇴직의 시기, 「고령기의 시작」의 17개 항목들과 현재생활의 삶의 보람과의 관련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8> 현재생활의 삶의 보람 (행복감, 만족감)과 각 항목간의 상관관계

항목		행복감	만족감	
생활 실태	건강	.000	.010	
	가족 관계	가족의 여러 결정내용에의 관여정도	.000	.000
		의견이 가족에게 존중정도	.000	.000
		가족에게 존경 정도	.000	.000
		자신의 욕구대로 생활정도	.000	.000
	노후 생활준비	노후의 생활에 준비 정도	.000	.000
		노후의 생활에 관한 의향	.183	.098
	사회활동	다중회답으로 인한 평가 불능	-	-
	경제	연 수입	.000	.000
		저축액	.000	.000
수입의 형태		.002	.000	
가치관과 의식	생활평가	현재생활에 대한평가 정도(행복감)	-	.000
		현재생활의 만족정도(만족감)	.000	-
		장래의 생활에 대한 평가정도	.000	.002
	생활의식	매일생활의 정도	.000	.000
		정년퇴직의 시기	.100	.553
		고령기의 시작	.360	.414

유의수준(α=0.05)

분산분석의 결과, 「노후 생활에 관한 의향, 「사회활동」생활 의식의 「정년퇴직의 시기, 「고령기의 시작」항목을 제외한 13개 항목의 유의확률(P-Value)이 유의수준(α=0.05)보다 낮으므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고령자의 현재생활의 삶의 보람(행복감, 만족감)은 <표 8>의 내용 중 상기 4항목을 제외한 조사항목에 대하여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이의 결과, 고령자의 현재생활에 영향을 주는 13개 항목에 대한대상 지역의 고령자의 생활실태를 비교조사 한다.

(2) 조사대상자의 속성

본 조사연구 대상자에 대한 속성으로, 23개 항목 중 성별, 연령, 세대구성, 직업 등의 8개 항목에 대하여 분석한다. 각 표 내용 중 결측수는 데이터에서 제외하였다.

1) 성별과 2) 연령은 조사개요로 대체 한다.

3) 배우자의 유무와 동거의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조사 대상자의 배우자 유무와 동거

내용	서울	조치원	계
	빈도수 (%)	빈도수 (%)	빈도수 (%)
배우자와 동거	133 (65.5)	126 (82.4)	259 (72.8)
배우자와 사별	66 (32.1)	24 (15.7)	90 (25.3)
이혼	3 (1.5)	2 (1.3)	5 (1.4)
미혼	1 (0.5)	1 (0.7)	2 (0.6)
총수	203 (100.0)	153 (100.0)	356 (100.0)

4) 직업의 항목별 결과는 <표 10>와 같다

① 조사대상자의 현재의 직업

<표 10> 현재의 직업

	내용	서울	조치원	계
		빈도수(%)	빈도수(%)	빈도수(%)
피고용자	회사원	13(7.4)	4(2.7)	17(5.3)
	공무원	7(4.0)	5(3.4)	12(3.7)
	교직원	3(1.7)	3(2.0)	6(1.9)
	군인	2(1.0)		2(0.6)
	소계	25(14.2)	12(8.2)	37(11.5)
자영업자	농림어업	5(2.9)	48(32.7)	53(16.5)
	자영업	21(12.0)	11(7.5)	32(9.9)
	자유업	12(6.9)	8(5.4)	20(6.2)
	소계	38(21.8)	67(45.6)	105(32.6)
전문기술자	자격전문가	5(2.9)	2(1.4)	7(2.2)
	전문기술직	5(2.9)	2(1.4)	7(2.2)
	소계	10(5.7)	4(2.7)	14(4.3)
무직·기타	주부	46(26.3)	17(11.6)	63(19.6)
	무직	53(30.3)	43(29.3)	96(29.8)
	기타	3(1.7)	4(2.7)	7(2.2)
	소계	102(58.3)	64(43.5)	166(51.6)
	총수	175(100.0)	147(100)	322(100.0)

5) 현 지역 거주 년 수의 항목별 결과는 <표 11>와 같다.

<표 11> 현 지역 거주 년 수

내용	서울	조치원	계
	빈도수(%)	빈도수(%)	빈도수(%)
2년미만	18(8.7)	3(1.9)	21(5.8)
2년이상 5년미만	47(22.8)	13(8.4)	60(16.7)
5년이상 10년미만	46(22.3)	17(11.0)	63(17.5)
10년이상 15년미만	37(18.0)	12(7.8)	49(13.6)
15년이상 20년미만	27(13.1)	13(8.4)	40(11.1)
20년이상 30년미만	22(10.7)	19(12.3)	41(11.4)
30년이상 40년미만	3(1.5)	15(9.7)	18(5.0)
40년이상 50년미만	3(1.5)	13(8.4)	16(4.4)
50년이상	3(1.5)	49(31.8)	52(14.4)
총 수	206(100.0)	154(100.0)	360(100.0)
평균	11.4	29.5	19.1

6) 가족구성의 항목별 결과는 다음<표 12>, <표 13>과 같다.

① 배우자와 동거

<표 12> 배우자의 동거

내용	서울	조치원	계
	빈도수(%)	빈도수(%)	빈도수(%)
배우자와동거	133(66.8)	126(84.0)	259(74.2)
배우자와사별	66(33.2)	24(16.0)	90(25.8)
총 수	199(100.0)	150(100.0)	349(100.0)

② 자녀와 동거

<표 13> 자녀와 동거

내용	서울	조치원	계
	빈도수(%)	빈도수(%)	빈도수(%)
동 거	115(59.6)	62(49.2)	177(55.5)
별 거	72(37.3)	62(49.2)	134(42.0)
무 자녀	6(3.1)	2(1.6)	8(2.5)
총 수	193(100.0)	126(100.0)	319(100.0)

(3) Q.O.L 상층요인의 고령자 생활실태 조사

조사연구대상자에 대한 생활실태의 조사내용은 건강, 가족관계, 노후의생활준비, 경제상황의 10개 항목을 분석한다.

1) 건강

① 건강도

조사대상자의 건강도는 전체적으로 「건강하다(아주 건강+조금 건강)」의 비율이 37.8%이고, 「보통이다」31.8%로 이를 합한 70%정도가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응답 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의 73.5%가 「건강하다」+「보통이다」의 비율로 조치원의 64.2% 보다 9.3%높았고, 「건강하지 않다」의 비율은 조치원이 서울의 26.4% 보다 9.4%높은 35.8%의 결과였다.

<표 14> 건강도

내용	서울	조치원	계	
	빈도수(%)	빈도수(%)	빈도수(%)	
건강	아주 건강	10(4.9)	9(6)	19(5.4)
	어느 정도 건강	71(34.8)	44(29.1)	115(32.4)
보통		69(33.8)	44(29.1)	113(31.8)
건강안함	별로 건강하지 않다	46(22.5)	42(27.8)	88(24.8)
	아주 나쁘다	8(3.9)	12(8)	20(5.6)
총수	204(100.0)	151(100.0)	355(100.0)	

② 성별별의 건강도

성별별의 건강도는 「건강」의 응답이, 남성 41.4%로 여성 35.1% 보다 6% 높고, 「건강안함」은 여성 35.8%로 남성 26.5% 보다 9.3% 높았으며 「보통이다」를 포함한 전체 남성 73.5%, 여성 64.2%가 건강한 고령자로 나타났다.

③ 연령별의 건강도

연령별의 건강도는, 「건강」과 「보통」을 포함한 「건강한 고령자」는 「고령자준비세대(준비)」89.8% 「전기고령자(전기)」60.9%, 「후기고령자(후기)」55.3%로 연령이 높을수록 건강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2) 가족관계

가족관계는 고령자가 가족사회에서의 지위와 처우에 대한 항목으로 가족 내에서의 의견 결정과 의견의 존중정도, 가족에게 받는 처우와 가족생활의 만족감 등 6개 항목에 대해 분석한다.

가족의 여러 결정사항에 대해 전체적으로 68%가 관여 「언제나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가족 일원의 입장으로 의견을 말함」하고 있었으며 그 비율은 서울 61.6%, 조치원 69%로 조치원이 약 8%정도 높았으며 「의견을 말하지 않는 경우」의 비율은 서울 21%, 조치원 11%로 서울이 높았다.

① 가족의 결정에 관여

<표 15> 현재 가족의 여러 가지에 결정에 대해 어떤식으로 관여하고 계신지?

내용	서울	조치원	계
	빈도수(%)	빈도수(%)	빈도수(%)
언제나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	40(21.6)	29(18.7)	69(21.2)
가족 일원의 입장으로 의견을 말함	74(40.0)	78(50.3)	152(46.8)
들으려하는 경우 의견을 말함	29(15.7)	16(10.3)	45(13.8)
별로 의견을 말하지 않음	39(21.1)	17(11)	56(17.2)
기타	3(1.6)		3(0.9)
총수	185(100.0)	140(90.3)	325(100.0)

② 의견이 가족에게 존중정도

의견의 존중정도는 전체적으로 「자신이 전부 결정한다」+「자

신의 의견이 잘 통한다'의 비율이 48.4%였으며 「보통」이 33.4%, 「자신의 의견이 잘 통하지 않는다」가 13.8%의 비율로 「보통」을 포함한 대개의 고령자는 집안의 가장으로서 의견이 존중되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의견이 존중 되지 않는다」, 「자신의 의견이 잘 통하지 않는다」+ 「아주 무시당한다」가 서울 20.6%, 조치원 11.5%로 서울의 비율이 높았다.

<표 18> 어르신께서 말씀하신 의견은 현재 가족들에게 가족의 여러 가지 결정사항에 대하여 어떻게 존중되어지고 있습니까?

내용	서울	조치원	계
	빈도수(%)	빈도수(%)	빈도수(%)
자신이 전부 결정한다.	7(3.5)	11(7.4)	18(5.2)
자신의 의견이 잘 통한다.	87(43.7)	63(42.6)	150(43.2)
가족구성원의 일원으로 의견을 들어준다(보통)	61(30.7)	55(37.2)	116(33.4)
자신의 의견이 잘 통하지 않는다.	33(16.6)	15(10.1)	48(13.8)
아주 무시당한다.	8(4.0)	2(1.4)	10(2.9)
기타	3(1.5)	2(1.4)	5(1.4)
총수	199(100.0)	148(100.0)	347(100.0)

3) 가족으로부터의 존경

가족으로부터의 존경은 전체적으로 「존경」(「아주 존경」+「어느 정도 존경」)이 62.8%, 「보통」29.9%이고 「존경 받지 않음」(「별로 존경 받지 않음」+「아주 존경받지 않음」)이 6.4%의 비율로 「보통」을 포함 「존경」이 92.7%의 높은 비율 이었다. 지역별로는 「아주 존경」이 조치원 54.2% 서울20.0%로 조치원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으며 「아주 존경 받지 않음」이 조치원은 없는 반면 서울은 3.9%의 비율로 나타난 것이 특색이었다.

<표 17> 현재 가족으로부터 존경받고 계십니까

내용	서울	조치원	계	
	빈도수(%)	빈도수(%)	빈도수(%)	
존경 받는다	아주 존경	41(20.0)	83(54.2)	124(34.6)
	어느 정도 존경	65(31.7)	36(23.5)	101(28.2)
	보통	77(37.6)	30(19.6)	107(29.9)
존경 받지 않음	별로 존경 받지 않음	11(5.4)	4(2.6)	15(4.2)
	아주 존경 받지 않음	8(3.9)	0	8(2.2)
	기타	3(1.5)		3(0.8)
총수	205(100.0)	153(100.0)	358(100.0)	

4) 현재생활에 대한 만족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만족」(「아주 만족」 7.2%+「어느 정도 만족」 41.2%)이 48.4%, 「보통」 39.3%로 「만족」-「보통」의 비율이 83.7%이었다. 지역별로는 「만족」이 서울 51.6%로 조치원 44.2%보다 높았으나 「보통」이 조치원 44.2%로 서울의 35.5% 보다 9%정도 높았다.

<표 18> 현재 생활에 만족하십니까

내용	서울	조치원	합	
	빈도수(%)	빈도수(%)	빈도수(%)	
만족 한다.	아주 만족	13(7.0)	11(7.5)	24(7.2)
	어느 정도 만족	83(44.6)	54(36.7)	137(41.2)
	보통	66(35.5)	65(44.2)	131(39.3)
만족하지 않음	별로 만족 않음	15(8.1)	11(7.5)	26(7.8)
	전혀 만족 않음	9(4.8)	6(4.1)	15(4.5)
	총수	186(100.0)	147(100.0)	333(100.0)

5) 가족들이 대하는 대우나 지위에 대해 만족

가족에 대한 고령자 개인의 대우나 지위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만족」(「아주 만족」 32.4%, 「어느 정도 만족」 27.4%) 하였으며, 「만족하지 않음」(「조금 만족하지 않는다」 6.4%, 「전혀 만족하지 않음」 2.5%)의 비율은 1할 미만이었다. 지역별로는 「만족」이 서울 56.5%보다 조치원이 64.3%로 높았으며 특히, 「아주 만족」이 조치원 42.2%로 서울의 25.1% 보다 17%정도 높았다.

<표 19> 현재 가족들이 대하는 대우나 지위에 대해 만족

내용	서울	조치원	계	
	빈도수(%)	빈도수(%)	빈도수(%)	
만족 한다	아주 만족	52(25.1)	65(42.2)	117(32.4)
	어느 정도 만족	65(31.4)	34(22.1)	99(27.4)
	보통	72(34.8)	41(26.6)	113(31.3)
만족하지 않음	별로 만족 않음	14(6.8)	9(5.8)	23(6.4)
	전혀 만족 않음	4(1.9)	5(3.2)	9(2.5)
	총수	207(100.0)	154(100.0)	361(100.0)

6) 자신의 욕구대로 생활

자신의 욕구대로 생활하는 것에 대해 전체적으로 「그렇다」(「매우」+「어느 정도」) 49.7%, 「보통」 34.2%로 「그렇다」+「보통」을 합한 84%정도의 고령자가 불편 없이 자신의 욕구 대로 생활하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조치원 모두 전체의 비율과 같아 큰 변화는 없었다.

<표 20> 자신의 욕구대로 생활하십니까

내용	서울	조치원	계	
	빈도수(%)	빈도수(%)	빈도수(%)	
그렇다	매우	18(9.8)	22(15.1)	40(12.1)
	어느 정도	75(40.8)	49(33.6)	124(37.6)
보통	62(33.7)	51(34.9)	113(34.2)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15(8.2)	20(13.7)	35(10.6)
	전혀 그렇지 않다	14(7.6)	4(2.7)	18(5.5)
총수	184(100.0)	146(100.0)	330(100.0)	

3) 노후의 생활준비

1) 노후생활의 준비

「노후의 생활에 대비하여 준비한 것이 있습니까.」에 대한 응답자는 약 90%로 10%는 무응답이었으며, 이중 「준비하였다」의 응답자는 전체적으로는 84.3%로, 지역별로 보면 서울85.8%, 조치원 82.4%로 서울이 3.4%정도 높았다.

「특별히 없다」를 제외한 상위 5위까지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주택의 소유」 41.6%, 「저축」 13.5%, 「심신의건강유지·증진의 노력」 12.0%, 「연금의 가입」 8.7%, 「보험의 가입」 3.9%였으며, 지역별로는 내용의 변화는 없고 순위 변화의 차이가 있었다. 서울의 경우 「연금의 가입」, 「심신의건강유지·증진의 노력」순으로 3, 4위가 조치원은 「심신의건강유지·증진의 노력」, 「연금의 가입」, 「저축」의 순으로 2, 3, 4위가 바뀌었다.

「주택의 소유」의 경우 서울 45.9%, 조치원 35.5%로, 「저축」의 경우 서울 17.5%, 조치원 8.4%의 비율로 서울이 모두 약 10% 정도 높았다.

<표 21> 노후생활의 준비내용

내용	서울	조치원	계
	빈도수(%)	빈도수(%)	빈도수(%)
주택의 소유	84(45.9)	55(37.2)	139(41.7)
저축	32(17.5)	13(8.8)	45(13.7)
보험의 가입	10(5.5)	3(2.0)	13(3.9)
연금의 가입	14(7.7)	15(10.1)	29(8.9)
노후의 수입원으로 자격·기능의 습득	1(0.5)	2(1.4)	1(0.9)
심신의 건강유지·증진의 노력	13(7.1)	27(18.2)	40(12.1)
새로운 취미·라이프 워크의 발굴	3(1.6)	7(4.7)	10(3.1)
특별히 없다	26(14.2)	26(17.6)	52(15.7)
총 수	183(100.0)	148(100.0)	331(100.0)

4) 경제

① 월 수입

조사대상자의 연간 수입액은, 「월수 100만원 미만」(「무」+「50만원 미만」)이 가장 많고, 연간수입으로 환산하여 1200만원 미만이 7할이었다. 평균 연 수입액은 서울 1,296만원, 조치원 810만원으로 서울이 높았다.

<표 22> 조사대상자의 월수입

(단위 : 만원)

내용	서울	조치원	계
	빈도수(%)	빈도수(%)	빈도수(%)
없음	48(27.9)	53(36.3)	101(31.8)
50미만	27(15.7)	41(28.1)	68(21.4)
50-100미만	37(21.5)	17(11.6)	54(17.1)
100-150미만	16(9.3)	16(11.0)	32(10.1)
150-200미만	15(8.7)	9(6.2)	24(7.5)
200-300미만	11(6.4)	6(4.1)	17(5.3)
300-500미만	14(8.1)	3(2.1)	17(5.3)
500이상	4(2.3)	1(0.7)	5(1.5)
총 수	172(100.0)	146(100.0)	318(100.0)
평균	108만원	67.5만원	89.8만원

② 성별별·연령별 월 수입액

연령별 연 수입액은, 수입 순위는 지역별은 같았으며, 연령별로는, 「준비」는 연 수입액은 「600-1,200만원 미만」 21.8%, 「1,200-1,800만원 미만」 17.8%, 「1,800-3,600만원 미만」 12.9%이었고, 「전기세대」는 「없음」과 연 수입액 「600만원 미만」 58.9%, 「후기세대」는 「없음」과 「600만원 미만」 81.6%의 비율이었다

<표 23> 현재의 저축(저축액, 유가증권평가액)

(단위 : 만원)

내용	서울	조치원	계
	빈도수(%)	빈도수(%)	빈도수(%)
없음	42(23.7)	41(28.1)	83(25.7)
100미만	22(12.4)	13(8.9)	35(10.8)
100-300미만	10(5.6)	22(15.1)	32(9.9)
300-500미만	7(4.0)	11(7.5)	18(5.6)
500-1,000미만	12(6.8)	14(9.6)	26(8.0)
1,000-3,000미만	20(11.3)	20(13.7)	40(12.4)
3,000-5,000미만	26(14.7)	9(6.2)	35(10.8)
5,000-10,000미만	23(13.0)	10(6.8)	33(10.2)
10,000-30,000미만	9(5.1)	6(4.1)	15(4.6)
30,000 이상	6(3.4)		6(1.9)
총 수	177(100.0)	146(100.0)	323(100.0)
평균	3,403	1,997	2,768

<표 24> 성별·연령별연수입액

(단위 : 만원, 인%)

내용	성별		준비		전기	후기	계
	남	여	계	64세이하			
없음	63(31.5)	38(34.2)	101(32.5)	9(8.9)	42(33.9)	50(57.5)	101(32.4)
50 미만	41(20.5)	23(20.7)	64(20.6)	13(12.9)	31(25.0)	21(24.1)	65(20.8)
50-100	24(12.0)	29(26.1)	53(17.0)	22(21.8)	20(16.1)	10(11.5)	52(16.7)
100-150	24(12.0)	7(6.3)	31(10.0)	18(17.8)	10(8.1)	3(3.4)	31(9.9)
150-200	18(9.0)	5(4.5)	23(7.4)	13(12.9)	9(7.3)	2(2.3)	24(7.7)
200-300	12(6.0)	5(4.5)	17(5.5)	13(12.9)	4(3.2)	0(0.0)	17(5.4)
300-500	15(7.5)	2(1.8)	17(5.5)	12(11.9)	4(3.2)	1(1.1)	17(5.4)
500이상	3(1.5)	2(1.8)	5(1.6)	1(1.0)	4(3.2)	0(0.0)	5(1.6)
총 수	200	111	311	101(100.0)	124	87	312

5) 저축액

조사대상자의 저축(저축액, 유가증권 평가액)은 전체로는 「1000만원-1억원 미만」 33%, 「100만원-1000만원 미만」 23.5%, 「100만원 미만」+「없음」 35%의 비율이다. 서울은 전체와 같은 순서의 분포였으나, 조치원은 「300만원 미만」 52%의 분포였다. 지역별 평균 저축액은 서울이 3,403만원, 조치원이 1,997만원으로 서울이 조치원보다 1.7배 정도 높았다.

6) 수입의 형태

수입의 형태에 대하여는 다중회답형식의 질문을 행하여, 상위 3위까지의 수입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전체적으로는 「자녀로부터의 송금」이 29.0%, 「급여소득」, 「저축」이 각 14.2%, 「공적연금」이 12.6%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조치원이 서울보다 「자녀로부터의 송금」의 비율이 7%정도, 「공적연금」비율이 4.3% 높았고, 서울은 조치원보다 「저축」과 「급여소득」의 비율이 현저히 높았다. 이것은 조치원이 후기 고령자의 비율이 높고, 서울은 고령자의 취업률이 높은 것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표 25> 수입의 내용

내용	서울	조치원	계
	빈도수(%)	빈도수(%)	빈도수(%)
공적연금	19(10.7)	21(15.0)	40(12.6)
사적연금	3(1.7)	5(3.6)	8(2.5)
급여소득	35(19.8)	10(7.1)	45(14.2)
저축	36(20.3)	9(6.4)	45(14.2)
예금의 이자·주식배당	14(7.9)	15(10.7)	29(9.1)
부동산 수입	8(4.5)	16(11.4)	24(7.6)
자녀로부터의 송금	46(26.0)	46(32.9)	92(29.0)
기타	16(9.0)	18(12.9)	34(10.7)
총 수	177(100.0)	140(100.0)	317(100.0)

(3) 가치관과 의식

1) 생활평가

① 현재의 생활에 대한 행복감,

「현재 생활평가」에 대한 전체적 비율은 「행복」이 34.8%, 「보통」 54.6%, 「행복하지 않음」 10.6%이었다. 지역별로는 「행복」의 비율이 서울 38.3%로 조치원 30.5%보다 약 8%정도 높았으나, 「보통」의 경우는 서울 50.5%, 조치원 59.6%이었다. 「행복」+「보통」의 경우 서울 88.8%, 조치원 90.1%로 조치원이 높았다. 「행복하지 않음」은 서울 11.1%로 조치원의 9.9%보다 2.2%정도가 높은 비율이었다.

<표 26> 현재의 생활에 대한 행복감

내용		서울	조치원	계
		빈도수(%)	빈도수(%)	빈도수(%)
행복함	매우행복함	28(14.9)	21(13.9)	49(14.4)
	어느정도 행복함	44(23.4)	25(16.6)	69(20.4)
보통		95(50.5)	90(59.6)	185(54.6)
행복하지 않음	별로 행복하지 않음	14(7.4)	2(7.9)	16(7.7)
	전혀 행복하지 않음	7(3.7)	3(2.0)	10(2.9)
총 수		188(100.0)	141(100.0)	329(100.0)

② 현재의 생활에 대한 만족도

현재의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48.3%가 「만족」(「대단히」+「어느정도」)하였고, 또한 「만족 않음」(「별로 만족 않음」-「전혀 만족 않음」)이 12.3% 비율이었다. 지역별로는 「만족」이 서울 51.6%로 조치원의 44.2%보다 높았고, 「만족 않음」의 비율도 서울 12.9%로 조치원의 11.6%보다 높았으나, 「만족」+「보통」의 경우 서울 87.1% 조치원 88.4%로 조치원이 만족도가 약간 높았다. 「전혀 만족 않음」의 비율이 두 지역 모두 전체의 4-5%의 비율이었다.

<표 27> 현재의 생활에 대한 만족도

내용		서울	조치원	계
		빈도수(%)	빈도수(%)	빈도수(%)
만족 한다	대단히 만족	13(7.0)	11(7.5)	24(7.2)
	어느정도 만족	83(44.6)	54(36.7)	137(41.1)
보통		66(35.5)	65(44.2)	131(39.3)
만족하지 않음	별로 만족하지 않음	15(8.1)	11(7.5)	26(7.8)
	전혀 만족하지 않음	9(4.8)	6(4.1)	15(4.5)
총 수		186(100.0)	147(100.0)	333(100.0)

③ 매일의 일상사

매일의 일상사에 대하여 「바쁘다」(「몹시 바쁘고 충실」+「바쁘지는 않으나 대개 충실」)가 62.8%로, 「바쁘지 않다」(「여유와 휴식 기분으로 충실」+「아무것도 않고 아주 충실 않음」) 12.3%보다 높은 비율이었다. 조치원은 「바쁘다」 65.1%, 「바쁘지 않다」 10.7%이었으며, 서울은 60.9%, 13.5%의 비율로 조치원이 「바쁘다」 응답률이 4%정도 높았다. 이는 조치원의 경우 지역의 산업(농림어업)에 종사하는 고령자의 비율이 높은 것에 기인한다.

<표 28> 매일의 일상사

내용		서울	조치원	계
		빈도수(%)	빈도수(%)	빈도수(%)
바쁘다	몹시 바쁘고 충실하려 생각함	44(23.9)	21(14.1)	65(19.5)
	바쁘지는 않으나, 대개 충실하려 생각함	68(37.0)	76(51.0)	144(43.2)
보통이다		47(25.5)	36(24.2)	83(24.9)
바쁘지 않다	여유와 휴식을 가진 기분으로 충실하려 생각함	14(7.6)	10(6.7)	24(7.2)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주 충실하려 생각하지 않음	11(6.0)	6(4.0)	17(5.1)
총 수		184(100.0)	149(100.0)	333(100.0)

④ 장래의 생활에 대해 어떤 예측을 하고 있는지

장래의 생활에 대해 어떤 예측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통」 41.0%, 「밝음」(「아주 밝음」+「어느 정도 밝음」)

32.1%, 「어두움」(「대개 어둡다」+「아주 어둡다」)26.8%의 순이었다. 전체적인 응답은 「밝음」이 「어두움」의 비율보다 약간 높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은 순위가 같았으나, 조치원은 「어두움」 36.8%, 「보통」 36.2%, 「밝음」21.9%의 비율로 조치원이 장래의 생활예측이 「어두울 것이다」라는 부정적비율이 높았다.

<표 29> 장래의 생활에 대한 예측

내용		서울	조치원	계
		빈도수(%)	빈도수(%)	빈도수(%)
밝음	아주 밝다	22(12.0)	11(7.2)	33(9.8)
	어느 정도 밝다	45(24.4)	30(19.7)	75(22.3)
보통이다		83(45.1)	55(36.2)	138(41.0)
어두움	대개 어둡다	27(14.7)	44(28.9)	71(21.1)
	아주 어둡다	7(3.8)	12(7.9)	19(5.7)
총수		184(100.0)	152(100.0)	336(100.0)

4. 조사 분석의 결과

고령자의 삶의 질 구조 분석을 위한 기초 단계로 삶의 보람의 정도에 기인하는 13개 항목에 대한 서울과 조치원 지역거주 고령자의 현재 생활 실태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4.1. 조사대상자의 속성

전체 조사대상자의 성별 비율은 남여 6:4이고 지역별로는 서울 5:5, 조치원 8:2의 비율이며, 연령별로는 전체평균은 69.5세 서울 68.6세, 조치원 71.2세로 서울이 약간 젊은편이었으며 연령별 구성으로는 고령자 준비세대와 전기 고령자 세대의 구성이 72.8%로 조사내용의 분석은 이들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가 되었다. 직업의 경우 도시와 농촌의 특징이 확실히 나타나 서울의 경우 정년퇴직 전 피고용자의 비율(42.1%)이 높아 은퇴 후 무직 비율(41.4%)이 높았으며 조치원의 경우는 자영업자 농림어업의 종사자가 주를 이루고 있어 은퇴 전 후의 자영업자 비율이 54.3%, 50.3%로 큰 폭의 변동없이 비율이 유지되었다.

현 지역의 거주 년 수는 조치원 29.5년 서울 11.4년이었으며 10년 이상 거주 경우 서울 46.3%, 조치원 88.1%의 비율로 특히 조치원의 경우 50년 이상 거주 비율이 31.8%이었다. 배우자와의 동거비율은 전체적으로는 72.8%, 남성의 경우 85%이상이었으나, 여성은 45%이상 사별한 독신이었다. 자녀와의 동거율은 전체적으로는 동거 55%였으며 별거와 무자녀를 포함한 고령자 단독세대가 44.5%이었다. 서울의 경우 동거와 고령자 단독세대의 비율이 6:4비율로 조치원의 5:5비율 보다 동거율이 높았다.

4.2. 생활 실태

1) 건강도는 전체 고령자의 70%가 건강한 고령자로 비율은 서울 73.5%, 조치원 64.2%로 서울이 11%정도 높았으며 성별

별로는 남성 73.5%, 여성 64.2%로 남성이 건강한 편이었다. 연령별 건강도는 연령이 높을수록 건강이 나빠지는 것은 보편현상이나 건강한 고령자의 비율이 「준비세대」 89.8%에서 「전기」 60.9%로 이시기에 건강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2) 가족관계는 고령자가 가족사회에서의 지위와 처우에 대한 항목으로 조사대상 고령자의 92.7%가 가족으로부터 「존경」+「보통」의 처우로 집안의 어른으로 존중되고 가족의 여러 문제를 관여하고 있었으며 본인 자신이 느끼는 만족도 역시 같은 9할대의 비율이었다.

3) 노후의 생활준비는 무응답자를 제외한 전체 90% 중 「준비하였다」의 응답자는 전체적으로는 84.3%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85.8%, 조치원 82.4%로 서울이 3.4%정도 높았다. 내용으로는 주택이나 저축 등의 경제적 사항에 대하여 서울 77.1% 조치원 59.5%, 개인의 취미, 건강, 새로운 것의 발굴 등에 대해 서울 8.7%, 조치원 22.9%비율이었다. 고령자의 노후준비의 주요 부분은 주거, 경제, 건강 등이 차지하고 있었다.

4) 경제는 연간 수입의 경우 정년 전에는 평균 1,978만원이었으나 현재는 1,080만원으로 1/2정도 감소했으며 지역별로는 조치원이 낮았다. 평균 저축액은 서울의 경우 약 3,400만원이고 조치원의 경우 약 2,000만원으로 서울이 저축액이 많았다. 수입의 형태는 자녀로부터의 송금이 약30%이며 연금 외의 노후준비는 저축, 주식, 부동산 등이 서울 32.7%, 조치원 28.5%의 비율이었고, 급여소득 부분은 서울이 월등히 높았다.

4.3. 가치관과 의식

현 생활에 대한 행복감은 「행복하다」와 「행복하지 않다」의 비율이 모두 서울이 높았으나 「보통」의 경우를 포함하면 조치원이 약간 높은 비율이고, 현생활의 만족도 역시 행복감과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 매일의 일상사의 경우 전체적으로 60%이상 충실히 보내려하고 있으며 보통의 경우를 포함한 비율은 서울 86%, 조치원 90%의 비율로 대부분의 고령자가 매일을 충실히 보내고 있었다. 미래의 생활의 예측의 경우 전체적으로는 「밝음」이 「어두움」의 비율보다 약간 높았다. 그러나 조치원은, 「어두움」 36.8%, 「보통」 36.2%, 「밝음」 21.9%의 비율로 어두울 것이라는 부정적 예측이 높았다.

5. 결론

21세기 고령 사회에서 고령자의 삶의 보람은 개인의 가치관을 기초로 하는 매우 주관적인 것으로 그 시기의 삶은 각자 자신이 목표로 하는 삶의 방향에 의해 좌우되며, 그 질은 상대적으로 사회구조 변화에 의한 가치관의 변화, 개인의 성취에 따른 결과로 변화되어 얻게 된다. 그러므로 각종 고령자의 대책

역시 이러한 고령자 개인의 목표설정과 목표로 하는 삶의 방향의 실천을 지원하는 조건과 환경을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야한다. 고령자의 생활행동의 관점에서 지역사회 거주 고령자의 삶의 질(Q.O.L)을 충실히 하기 위한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새로운 고령자 상의 창출

삶의 질에 의한 삶의 보람의 문제는 고령자 자신이 해결을 해야하는 과제이지만 고령자 자신은 어떠한 상태가 자신에게 삶의 보람이 있는 생활인지를 인지하고 그가 속한 사회와의 교류를 통하여 환경에서의 지원과 자신이 바라는 활동을 희망하는 형태로 행할 수 있는 Q.O.L이 높은 고령자 상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2. 고령자에게 적절한 생활환경의 지원

고령자의 Q.O.L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현재 생활의 삶의 보람은 가족, 지역사회를 근거로 하는 사회시스템의 지원이 필수이며 이는 현 생활실태의 조사 분석을 기본으로 한다. 본 연구의 생활실태의 분석결과, 고령자의 70%이상을 차지하는 건강한 고령자와 60세에서 75세사이의 건강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건강대책, 고령기의 수입 감소와 자녀의 경제적 지원 의존도를 낮추는 경제적 대책과 고령자가 노후준비를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정보와 교육대책 등에 관한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다방면에서의 연구 분석을 통한 고령자의 삶의 질 관련 구조 파악의 시도는 고령자의 Q.O.L향상을 목표로 하여 고령사회 생활환경 구축의 시설대책 프로그램 지원 소프트웨어로 활용되어 최적의 환경조건의 창출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趙弼花, 高齢者のQuality of Lifeに關する研究, 政策科學, 立命館大學校 政策科學部, 2000.9.
2. 神谷美惠子, 生きがいについて, みすず書房, 1980.
3. 宮成音弥, 日本人の生きがい, 朝日新聞社, 1971.
4. 윤병식 외, 한국인의 '삶의 질' 현황과 정책과정,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1996.
5. 이주원, 도시지역 삶의 질에 대한 비교 연구 - 서울과 동경시 23개구를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6. 하재구, 서울시민의 삶과 질 실태와 시정부의 공공정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6.
7. 양종희 외, 21세기 지역주민의 삶의 질, 집문당, 1998.
8. 이인영, 삶의 질 분석을 통한 도시개발효과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환경과학대학원, 1966.
9. 이재기·이은우·김재홍 공저, 삶의 질의 국제비교와 지역 간 비교분석, 집문당, 1988.
10. 박성복 외 삶의 질에 대한 규범적 접근, 21C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망과 과제, 대구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1996.
11. 안지민, 경북 기초자치단체의 삶의 질 비교평가, 경북대학교 석론, 2000.
12.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1. 11.
13. 통계청, 2001년 생명표, 2003. 09.

<접수 : 2004. 4. 30>